

④ 美 대선레이스 엿보기

대선 2년 전부터 캠프 가동, 정책 대결 치열

글 | 이은정 _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둔 이 시점에도 과연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주위 사람들이 많다. 언론에서는 대선 막판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아니 이미 정리한 입장이 흔들리게 하는 혼란스러운 선거라고 난리다. 후보자 등록부터 역대 사상 최고인 12명이라고 하니 마지막으로 변수가 나오기도 하고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과학은 다른 이슈에 묻혀 뒤로 처진다. 과학에 가까이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올 대선은 본격적인 과학정책 경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정작 과학이 더욱 대접받지 못하는 역대 최악의 선거가 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올해도 대선 후보를 초청한 토론회를 열었다. 4년 전 같으면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 모든 후보들의 토론회가 끝났을 시점인데, 이번에는 두 후보밖에 하지 못했다. 11월 1일에 잡힌 이명박 후보의 토론회는 무사히 끝났지만, 11월 12일로 잡혔던 이인제 민주당 후보의 토론회는 아예 무산됐다. 11월 15일로 잡혔던 정동영 후보 토론회는 일주일을 미뤄서야 겨우 열렸다. 이인제 후보와 같은 다른 후보들에게도 토론회 개최를 제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아무래도 올해는 2명의 후보와만 토론을 하고 끝내야 할 것 같다. 필자도 원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시작으로 각 후보들의 과학정책을 분석해보려고 했으나, 도저히 후보별로 분석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우리 상황에서 바다 건너 미국을 바라보면 사뭇 부럽기만 하다. 내년엔 치러질 미국 대선은 벌써부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바락 오바마의 정책 대결을 보면 미국이 우리처럼 대선이 한 달 남은 것 같고, 우리 나라가 아직 1년 뒤에 선거가 있는 것 같다.

짧지만 명쾌했던 클린턴의 과학이슈

1992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이 내놓은 선거 구호는 “바보야, 중요한 것은 경제야(Stupid, It's Economy)”였다.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2004년 7월 26일, AP=연합뉴스).

김민준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이 2007년 11월 17일 로스 앤젤레스에서 '세계경보(警報)와 미국 에너지 장래에 관한 프레지덴셜 포럼'에 참가해 연설하고 있다(2007년 11월 18일, AP=연합뉴스).

이 구호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 상 후보의 정책을 가장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구호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약 2년 전부터 대선 후보들의 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물론 후보 개인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물밑 작업까지 친다면 2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하간 본격적인 시간만 그렇다는 것이다. 이 기간 중 캠프에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다. 각 분야별 이슈와 핵심 주제를 난상토론하고 가장 필요한 '엑기스'를 뽑아내고 이 구호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짜기 위해 다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한 끝에 빌 클린턴 캠프는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경제와 연결시키는 전략을 짰다. 당시 빌 클린턴은 아칸소 주지사 경력밖에 없는 초보자였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의 승리를 등에 업고 재선을 노리는 현직 대통령이였다. 닷넷과 골리앗의 싸움일 수도 있는 이 경쟁에서 클린턴은 획기적인 IT정책으로 조지 부시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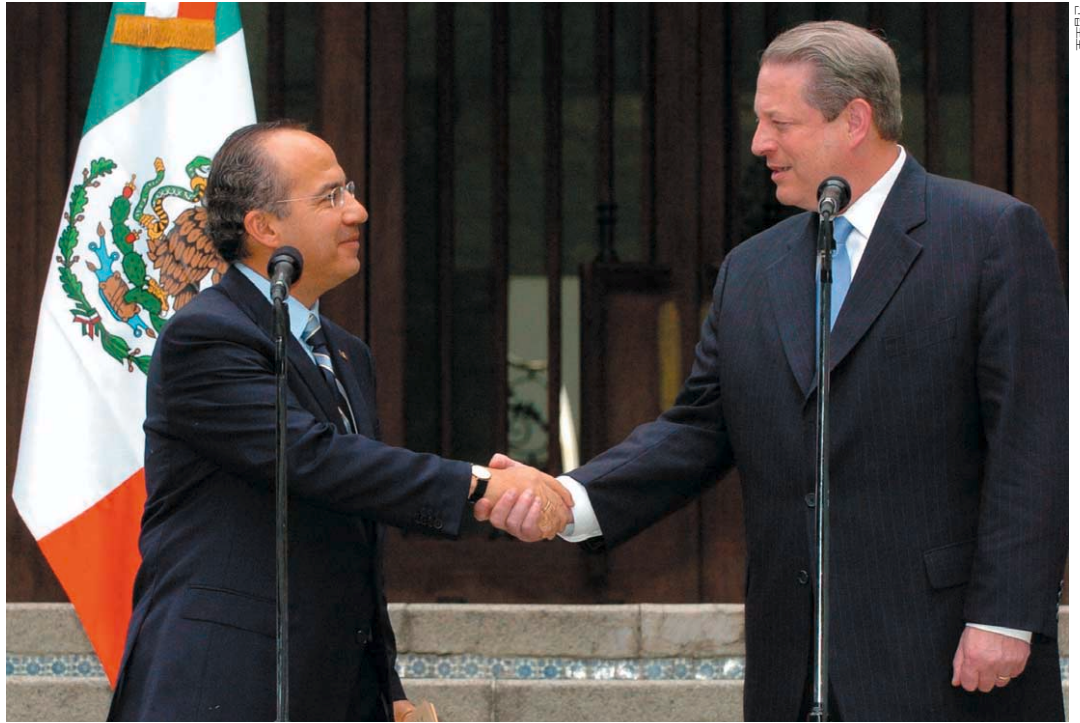
당시 클린턴은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기업, 가정을 광케이블

로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애플, 오라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굵직굵직한 IT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후원해왔으나 이 정책으로 클린턴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선거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2004년 대선 때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새로운 과학 이슈로 등장했다. 당시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는 그의 종교적 신념(기독교)에 따라 생명을 파괴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 하버드대학의 월터 길버트, 칼텍의 데이비드 발트모어 등과 같은 과학자들은 민주당에 지지 편지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결과적으로 부시의 당선으로 줄기세포 연구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지만 과학자들의 활약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큰 것을 보여준다.

지구 온난화·에너지 문제는 전 지구적인 관심

내년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는 벌써부터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굴지의 석유회사들로부터 엄청난 정치



2007년 7월 31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회담에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회담에서 칼데론 대통령은 '기후보호를 위한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EPA=연합뉴스).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화당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부시 정부가 현재 교토 의정서의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바락 오바마 두 후보는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바마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 무소속의 조 리버만 상원의원과 함께 산업 시설의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힐러리 클린턴 역시 석유 회사가 재생에너지 연구 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202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의 2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힐러리는 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더 많은 미국 학생들이 과학, 수학, 공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대학 보조금과 학생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부시 대통령이 선포한 과학에 대한 전쟁을 막겠다고 하는 등 다양한 과학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앨 고어가 받으면서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

제는 더욱 큰 전지구적인 이슈가 됐다. 반기문 유엔총장은 유엔총장으로서 처음으로 남극을 직접 방문해 지구 온난화의 현실을 체험했다. 또 유엔이 나서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올해 우리 나라 대선에서 환경과 온난화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과 삼성 비자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마당에 온난화와 같은 ‘한가로운’ 이슈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을 테지만 말이다. 대선을 앞둔 후보들은 선거를 준비하는 시절에 가장 많이 공부할 한다. 그런데 이 기간을 대충 보낸 후보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적으로 변화해가는 과학정책과 이슈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1990년대 이후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암울한 선거라 할 수 있겠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생명윤리)를 받았다. 1995년 언론계에 입문 후 경향신문에서 10여 년간 과학분야를 담당했다.